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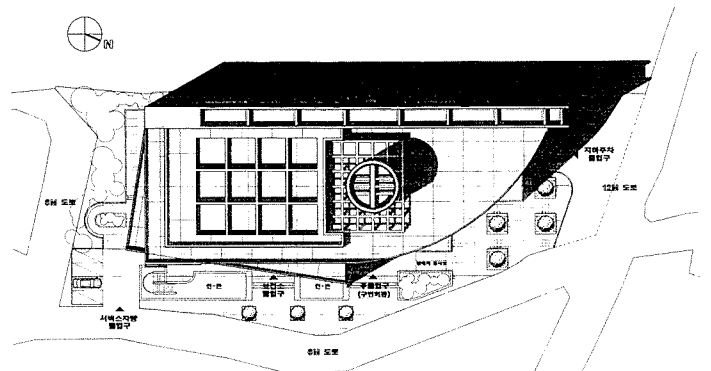
조감도

동작구 구민회관 및 보건소 청사

Tongchakgu Residential Hall & Preservation of health Center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며, 지역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구민회관 및 보건소 청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8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주수일건축+소람·두기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23일 발표하였다.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범일건축(이수형)안이, 기작으로는 공간인식건축(양상준)안이 각각 선정됐다.



배치도

당선작

**주수일건축(주수일)+
소람건축(허서규)**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75-10번지 외 5필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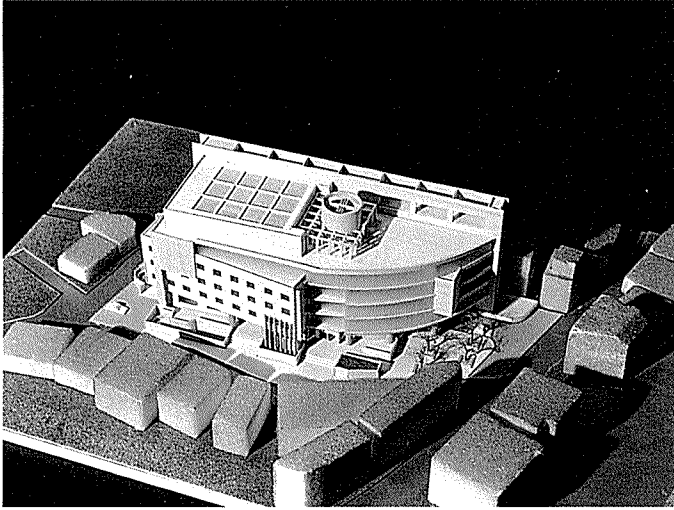
대지면적 / 2,887㎡
건축면적 / 1,469.62㎡
연면적 / 9,980.59㎡
건폐율 / 50.90%
용적률 / 211.21%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 트러스(강당 상부)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24mm 복층유리 커튼월

도시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 서로 이웃해 살고 있더라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등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성 속에서 서로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로운 구민회관 계획의 기본 모티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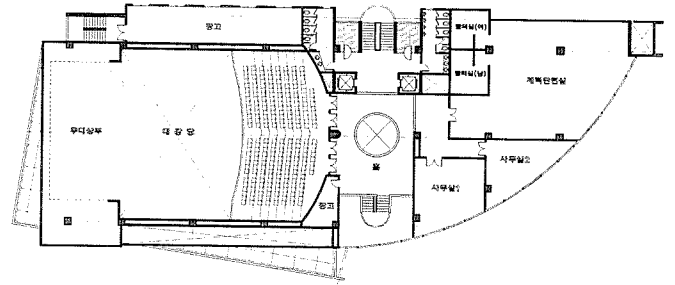
계획의 기본방향

동작구민회관은 기존의 대부분의 구민회관이 녹지나 공원과 접해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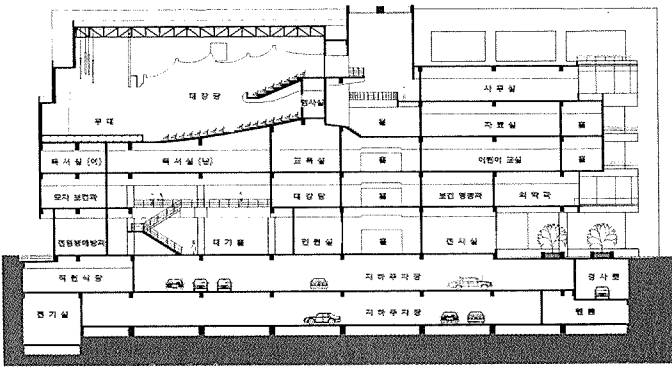
는 것과는 달리 구민들의 생활터전과 밀접해 있다. 대지는 주도로인 상도동길에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6m 도로를 따라 20m 정도 진입하여 자리하였다. 서측으로는 시장과 인접하여 있고, 주변은 상가, 주택, 학교 등이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구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터에 구민들의 중심점이 되고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어야하는 구민회관의 모습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하는 가라는 질문이 계획의 시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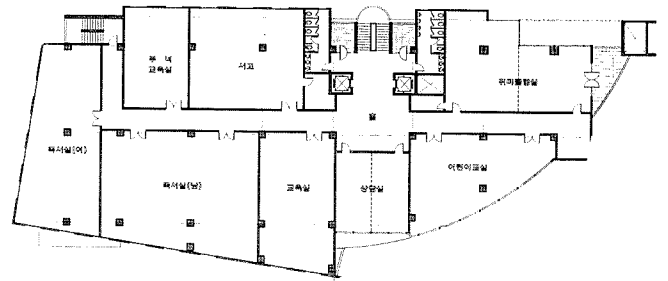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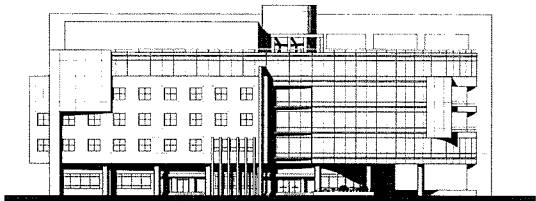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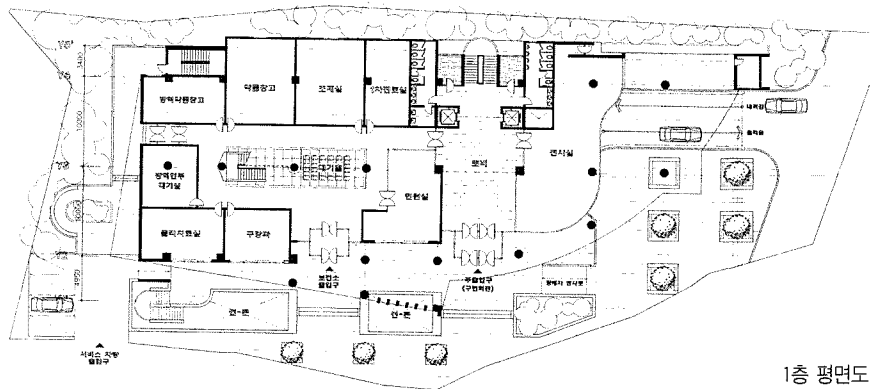
횡단면도



3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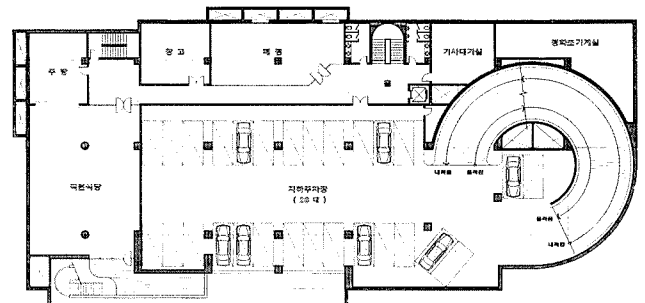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변건물들에 비해 커다란 건물규모와 공공건물이라는 무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스의 중첩과 입면의 변화를 통해 다양성과 조화를 표현하고 도로변에 소공원등 옥외공간을 확보하여 개방감을 넓히고 구민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였다.

건축 계획

구민회관과 보건소의 기능을 독립시키고 그에 따른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건축지침에 따라 보건소가 저층부에 구민

회관이 고층부에 위치하였고, Main Core에서 보건소와 구민회관의 동선을 수평과 수직으로 구분하였다. 동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내에 별도의 계단을 두어 두 용도의 기능적 분리를 도모하였다. 차량동선은 대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차량진입을 두어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혼잡을 피하였고 대지내 차량동선은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피로티등을 이용해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지하층 평면도